해외 닭고기 시장 동향

거부할 수 없는 자연재앙이라는 끊임없는 뉴스 때문에 모든 시장 참여자분들이 웃음을 잃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존해야 할 전체 소비시장 규모가 급속히 작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AI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루마니아, 터키 등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가금육 시장은 크게 위축되어 있고, 각 나라의 냉동 창고들마다 냉동 닭고기가 수북이 쌓여 있는 현실이다.

중국의 경우 큰 피해가 매우 심각한데 평소 소비량의 80%까지 급감했고, AI 사망자가 속출함에 따라 140억 마리의 가금에 백신을 투여한다는 뉴스까지 접하고 있다. 정부 통제력이 강한 중국의 보도가 이 정도라면 이미 중국내륙의 심각성은 가히 추측할 만하다.

한국의 경우 체인본사를 중심으로 한 닭고기 판매량이 10~15% 정도 줄어들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자사 브랜드 관리에 따른 것이고 대다수의 업체가 최소 30% 이상씩 판매량이 급감했다고 보고 있으며 50% 이상까지 감소한 업체들도 상당하다.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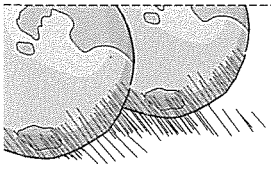
중국 정부의 AI관련 사망자는 11월 25일까지 총 3명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회자되고 있다. WHO의 한 바이러스 전문가에 의하면 AI 관련 사망자는 300명, 격리 조치된 사람은 3천명, 사람 사이에 전염된 경우는 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서는 꾸준히 스팀 및 데리야키 꼬치가 통관되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백신투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향후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백신이 접종된 경우 양국의 검역협정에 의해 교역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11월 한 달 사이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하여 중국과 아시아의 수출량이 급감함에 따라 10월 1,300불 정도였던 왕장각(Jumbo Whole Legs)의 경우 1,100불까지 떨어졌고, 사각(Leg Quarters)의 경우 톤당 1,000불대에서 현재 700불대까지 급락한 상태이다.

전체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한 12월의 경우 약보합세를 이루거나, 덤핑가격이 흘러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웃나라 캐나다의 컬럼비아 주와 뉴브런즈윅 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으로서는 12월과 1월이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선진화된 검역체계가 가동되고 있다고는 하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조류의 이동 경로를 모두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덴마크

10월과 11월 유럽의 AI가 재 창궐했을 때 철저한 방역체제로 무사히 고비를 넘겼다. 현재 가격은 장각(Regular Whole Legs)의 경우 1,300~1400불, 날개의 경우 1,800~1,900불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급치킨을 사용하고 있는 체인본사에 꾸준히 공급되고 있고 사육수수와 입식량을 계속해서 감소시키고 있어서 12월의 경우 강보합세를 이룰 것이며, 유럽의 소비량이 작년과 같이 되살아난다면 1월부터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다.

브라질

브라질의 국가 검역체계가 상당히 의심받고 있다. 국제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수출 검역관이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 검역 및 위생조항을 살펴보고 이상이 없을 때 국가를 대신해서 사인을 해야 하는데 부산항에 도착한 브라질 가금육에 대해 뉴캣슬병에 전염된 닭고기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수출국의 검역체계가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수출 전에 한국정부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나 브라질 정부는 이를 누락시켰다.

필자의 회사도 브라질과 교역을 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닭고기는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만두와 김치업계를 통해 호미로 막아도 될 것을 가래로 막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브라질 검역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기한 통관을 중단하고 이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고 사랑을 받는 최선의 방법이다. 닭고기는 하나의 상품이기 이전에 우리들의 먹거리다. 내 가족에게 먹일 수 없는 닭고기는 남들에게도 절대로 먹일 수 없는 일이다.

결론

계육협회를 비롯한 닭고기 관련 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혐오성 보도가 사라지고, 소비감소폭도 크게 줄었다. 소비가 살아나고 봄이 돌아오는 석 달 후의 시장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준다. 최소한 내년 2월이면 소비시장은 살아나고, 주부들은 자녀들에게 맛있는 닭고기를 계속해서 사줄 것이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사의 이기심을 적정하게 통제한다면 올 겨울도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박 진 호 대표이사
(주)메리트무역
NIPPON HAM 한국지사 근무
중앙대 국책 창업경영 대학원 석사과정중
• 문의 : merittrading@hanafos.com